

진안군, 군민 소통행정 빛났다 장마철 환경오염 방지 총력

행안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 5건 선정 1억7700만원 확보



진안군(군수 전춘성(사진))은 지난 17일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등 5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예산 1억7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고,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모심사를 통해 6개 분야(지방행정혁신 중점과제, 주민생활 밀착, 탄소중립, 주민건강·안전개선,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활성화)에서 최종 34개 사업을 선정해 총 32억2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올해 전북도에서는 총 11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이 중 진안군은 5개 사업에 예산 1억77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선정 사업은 △지방행정혁신 중점과제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2700만원)' △주민생활

밀착 분야 '365일 무휴 농기계 대여 은행 하이패스(3천만원)' △탄소 중립 분야 '자원순환가게 운영(6000만원)' △주민건강·안전개선 분야 '여성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3000만원)',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화장실(3000만원)' 등이다.

이는 타 지역의 우수 혁신사례를 찾아 지역 여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얻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은 비닐하우스·농로 등 도로명 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농로 등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농산 거래 및 인력수송 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웠던 주민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 은행 하이패스 사업'은 농기계 사용료 부과 개선 및 연중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무인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주말에도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주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업'은 캔, 페트 사용이 많은 주요 거점에 주민이 스스로 자원순환을 체험하는 자원순환가게(자동회수기)를 설치하고 분리

배출한 양만큼 주민에게 직접 유가 보상에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고 재활용품 회수를 향상을 통해 환경정책에 실효성을 제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1인 가구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은 안심홈세트(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도어락, 침문 잠금장치, 휴대용 호출벨)를 관내 여성 1인 가구 및 모자가족 등에 보급해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장치를 지원해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화장실'은 범죄에 취약한 다수의 관내 외곽 화장실에 3면 반사경을 설치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6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예산을 교부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불편함에 귀 기울인 소통행정이 빛을 발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발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환경오염 감시반 편성 3단계 구분 예찰활동 나서

무주군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환경오염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전후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예찰활동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군은 환경위생과에 환경오염 사전 홍보, 신고,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3단계별로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둔다. 1단계인 20일까지 수질오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홍보하는 한편 2단계 다음달 20일까지는 배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하천 등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장마피해 조사를 벌이고 파손된 시설에 대해 복구 유도과 기술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은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개 반 4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 감시반'을 편성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우려되는 무주·안성 농공단지 등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지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살피기로 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이 유입될 무주구천동 관광단지 예찰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장마철과 본격 행락철을 맞아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경우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장마철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휴일 상황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장수 홍보' 펼쳐

장수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리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장수군 지역 대표 관광지 홍보에 나섰다.

15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270여 개의 부스로 구성된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대한민국 유일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여행 전문 박람회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는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라는 주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행 정보를 비롯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내여행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 맛집, 주요 관광지 등을 현

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 정보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장수군은 닥트몰렛이벤트,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열어 장수군 주요 관광지 홍보를 펼쳤으며, 장수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국내 관광시장의 정상화에 발맞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 및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홍보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 관광지 및 장수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 윤리·인권경영현장 선포식 열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경영과 투명하고 정직한 도덕적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윤리·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ESG경영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고 있는 한우산업 유일의 공기업 장수한우지방공사는 2020년부터 윤리경영과 인권경영 체계 수립과 윤리·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윤리·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선포식에서 2022년에는 인권경영 구제절차 적절성 평가실행, 인권경영 성과평가 피드백, 윤리·인권 실현과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목표를 발표하고, 윤리·인권경영을 위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경영과 투명하고 정직한 도덕적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윤리·인권경영현장 선포식'을 가졌다.

최진구 사장은 "윤리경영과 인권경영은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경영 실현과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공기업의 사명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익을 위해 앞장서서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장계면 지사협, 주거취약계층 홈 클리닝 실시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광춘·양정숙)는 위생에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선정해 홈 클리닝 사업을 실시했다.

홈 클리닝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청소를 비롯해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장계면사무소 직원 등 10여 명은 대상자의 집 안팎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기존

의 도배, 장판을 걷어내는 등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이보고 소외된 이들의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양정숙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장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성료

진안군은 지난 17일 군청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6개 상담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제도다.

이날 국민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 산업, 농림, 도로, 교통, 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함을 해소하려는 군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총 50여건의 현장 상담이 진행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군은 상담 민원 중 단순 질의나 바로 해결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거나 권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촌인문학강좌 상생아카데미 개최

진안군은 지난 17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심진강 화백으로 유명한 송민규 화백을 초청해 '강물에 붓을 담아 그린 사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진안군과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진안군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넓히기 위해 월 1회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농촌인문학강좌 상생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2번째로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를 나선 송민규 화백은 한국목자연구회 회장,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전북지회장,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의장 등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으며, 심진강의 자연을 붓으로 그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화백으로 평소 관심이 있던 군민들이 강연장을 찾아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편 다음 농촌인문학강좌 상생아카데미는 진안문화의 집 2층 마이홀에서 7월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하며, 공동체주택으로 유명한 하우징공동주택동조합의 기노체 이사장이 주객과 농촌공동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